



미 증시, 생산자물가 부담, FOMC 경계심리 등으로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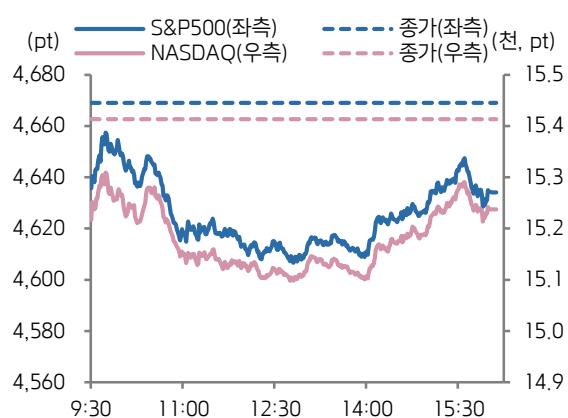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14 일(화) 미국 증시는 미국 생산자물가 서프라이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재부각, 12 월 FOMC 경계감 확대 등으로 약세(다우 -0.3% , S&P500 -0.75% , 나스닥 -1.14% , 러셀 2000 -0.96%). 장 전 발표된 미국 11 월 생산자물가지수(YoY $+9.6\%$)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다음날 FOMC 결과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 추가적으로 중국 코로나 변이 확산 사례 증가로 일부 제조업 공장들이 셧다운 되었다는 소식에 S&P500 지수는 0.7% 하락 출발. 이후 장중 저점(-1.3%)대비 낙폭을 줄이며 마감.

이날 발표된 미국 11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9.6% 상승(예상 $+9.2\%$, 전월 $+8.8\%$), 근원 지표는 7.7% 상승(예상 $+7.2\%$, 전월 $+7.0\%$) 기록하면서 FOMC 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높임. 한편, 미국 11 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1% 증가(예상 $+1.2\%$, 전월 -0.2%)하면서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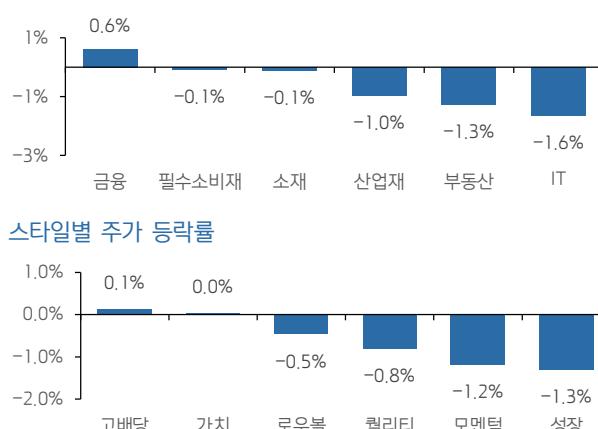
업종별로 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인 금융(+ 0.6%)을 제외하고, IT(-1.6%), 부동산(-1.3%), 산업재(-1.0%) 등 전업종이 약세. 개별 종목별로 벤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마이크로소프트(-3.3%), 테슬라(-0.8%), 애플(-0.8%), 세일즈포스(-3.8%) 등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 어도비는 금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JP 모건의 투자의견 다운그레이드(비중확대→중립) 여파로 하락. 화이자(+ 0.6%)는 구강용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입원 혹은 치사율을 89%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상최고치 경신.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634.09	-0.75%	USD/KRW	1,182.70	+0.16%
NASDAQ	15,237.64	-1.14%	달러 지수	96.57	+0.26%
다우	35,544.18	-0.3%	EUR/USD	1.13	-0.24%
VIX	21.86	+7.63%	USD/CNH	6.37	-0.03%
러셀 2000	2,159.65	-0.96%	USD/JPY	113.74	+0.18%
필라. 반도체	3,794.41	-0.5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008.00	-1.25%	국고채 3년	1.785	+0.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172	+0.5bp
Eurostoxx50	4,144.51	-0.92%	미국 국채 2년	0.655	+2.2bp
MSCI 전세계 지수	740.27	-0.8%	미국 국채 10년	1.439	+2.4bp
MSCI DM 지수	3,162.00	-0.8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30.61	-0.64%	WTI	70.33	-1.35%
MSCI 한국 ETF	77.68	-0.45%	금	1771.6	-0.9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5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5.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시간으로 16 일 새벽 발표 예정인 12 월 FOMC 결과 불확실성
- 연이은 미국 대형 테크 성장주 주가 부진이 국내 대형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11 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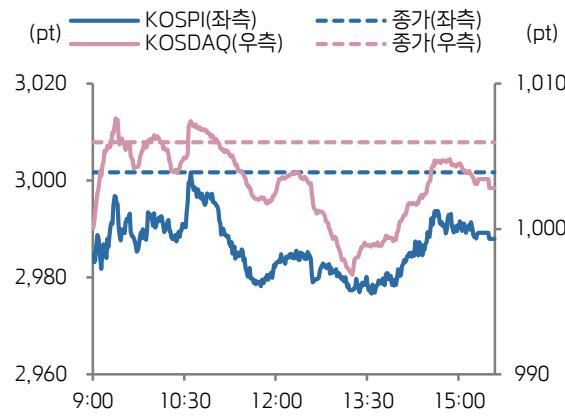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1 월 소비자물가(6.8%YoY, 예상 6.8%)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고점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부각되기도 했으나, 11 월 생산자물가(9.6%, 예상 9.2%)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재차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모습. 12 월 FOMC 결과 발표도 임박한 가운데, 금번 생산자물가 서프라이즈가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에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테이퍼링 가속화는 11 월 FOMC 이후 상당부분 시장에서 반영해왔던 재료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 가속화(=상반기 초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 이미 소비자물가(CPI), 개인소비지출(PCE) 등 여러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2%)를 넘어선 만큼, '22년 금리 인상 자체는 불가피할 전망. 생각해볼 점은 연준은 데이터 후행적으로 정책 변화에 나서는 성향이 있다는 것. 현재 기대인플레이션 고점 도달, 향후 연말 소비시즌 종료에 따른 연초 물류대란 완화 가능성 등에 주목해볼 필요. 즉, 실제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는 현시점에서 예상하는 것 보다(연 3~4 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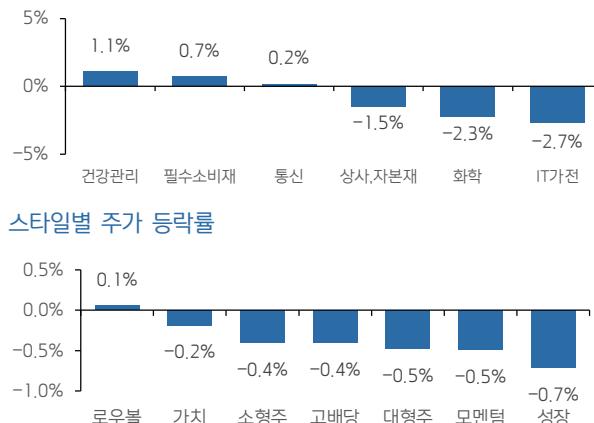
물론 12 월 FOMC 결과가 임박한 만큼, 금일 국내 증시도 관련 경계심리 확대 속 중국 실물경제지표 결과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전 거래일을 포함해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한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온 대형 테크 성장주들이 주가가 부진했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들에 주가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미국의 대형 테크 성장주들은 그동안 심했던 쏠림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성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 국내 대형 성장 및 IT 주들은 미국과 같은 쏠림현상이 부재했으며, 오히려 진입 가격 메리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갖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